

광주U대회 '도시 재창조' 동력으로

조직위원회 총회

3단계 전략 마련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조직위원회가 21일 대회의 주관절을 도시재생에 따른 재창조에 주관절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3단계 준비 전략을 확정했다. U대회 선수촌을 구도심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은 물론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낡은 시설을 재생시키는 방식을 도입,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의식의 질적 향상을 대회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21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정의화·이정민 조직위원장, 강운태 집행위원장 등 조직위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위원들은 ▲1단계(2010~2011) 대회시설계획 확정, 대회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액션플랜 수립, 홍보 인프라 구축 ▲2단계(2012~2013) 시설착공, 경기진행계획 완성, 마케팅전략 시행 ▲3단계(2014~2015) 시설 완공, 대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입장권 판매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오후 광주시 치평동 홀리데이인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 총회에서 이정민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직위는 또 광주U대회를 최고의 인프라, 흥행, 유산을 남기는 명품대회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경기장 시설 중 국제규격에 현저히 미흡한 2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기로 했다. 선수촌으로 쓰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에 이어 방송보도에 필요한 시설은 영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등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제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의화 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에 관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완성했다"며 "도시재생 효과의 극대화, 경제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표로 삼은 2015 광주U대회가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 속에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대규모 국제 경기대회 선수촌은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건립해왔지만, 환경문제, 재정문제,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아파트 재건축 방식의 선수촌 건

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강봉규 전 광주에총회장장과 문병관 조선대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노영열 한국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과 유동국 테크노파크 원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임했다. 또 야구 중목 추가에 따라 대안야구협회장, 광주지역 50개 경기단 체회장단, 문화·여성계 등 각계 위원 84명이 조직위원으로 추가 위촉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융합기술 아카데미' 뜬다

전국 각계 석학들 초청 매달 운영

오늘 '과학벨트 의미' 첫번째 강좌

광주시에 R&D특구 지정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융합기술의 본거지로 거듭나기 위해 국내 최고권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1일 "22일 오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1세기 선진한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광주·전남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제1회 광주 융합기술 아카데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전국 과학계 인사 500여 명이 초청돼 ▲연세대 최규홍 명예교수의 '벨트과학 시대가 온다' ▲경북대 김은산 교수의 '국내외 가속기 현황' ▲광주과기원 노도영 교수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

업과 삼각벨트'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의 '대형 과학 시설과 지반안정성' 등의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갖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융합기술 아카데미를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분야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학계,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융합 관련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 지역 연구기관, 기업체 종사자, 대학 교수, 학생,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상설 아카데미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광주융합기술 아카데미가 지역미래융합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선전하고, 광주를 융합산업의 본산지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외 융합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을 연사로 초청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처럼 권위 있는 아카데미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과학벨트 후보지 4곳 선정 제출

기존 3곳에 첨단 연구개발특구 3지구 추가

광주시는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에 앞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후보지 4곳을 선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는 기존 평동 군 흥련장 이전 예정지와 광주전남 빛그린산단 부지, 광주 진곡산단 부지 등 3곳에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 3지구 부지가 추가됐다. 평동 군 흥련장 이전 예정지는 평균 공시지가가 m당 3668

원으로 다른 경쟁지에 비해 저렴하고 필요하면 개발지역을 추가확대할 수 있으며 무안국제공항 30분, 광주공항 10분, 송정역 8분, 지하철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전남 빛그린 산단은 광산구와 함평군에 인접해 LH공사가 조성하고 있으며, 공항과 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진곡산단은 광주연구개발특

구에 포함돼 광주도시공사가 개발 중이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분석이다. 또 추가된 첨단 3단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부지로 첨단산단, 하남산단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지 면적과 공급 시기, 가격 등 전반적인 여건에서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자기 개혁도 물론 하시겠죠??

5·18교육관 준공 9개월만에 증축

2층 건물 30억 들여 2개층 늘려 숙박시설 설치

지난해 7월 준공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5·18 자유공원 내 5·18 교육관이 준공 9개월 만에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증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7년 본 사업비의 일부인 2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광주시가 2층 건물을 지었으나 4년 만에 다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내려보내다. 숙박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1일 "준공 이후 1~2층을 세미나실 등으로 운영했으며

5·18 단체들이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2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교육관 내 숙박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부서에서 재검토에 착수했으나 결국 5·18 단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5·18 교육관은 옛 상무대 법정인 346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08㎡ 규모로 설계됐으며,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체

험공간으로 주로 연수생이나 단체 체험자 등이 사용할 예정이다.

2개 층의 숙박시설은 타지역 연수생이나 단체 체험학습자들을 위한 시설로 2인실 20개, 5인실 5개 규모로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교육관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시민과 방문자들에게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쓰임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결국 5·18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준공 후 증축이라고 하지만 설계 당시 4층 건물로 돼 있어 공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과학벨트 첨단 지식산업 선도 새로운 국부창출 견인차 될 것"

김충리 과학의 날 축사

김충리 국무총리는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새로운 국부창출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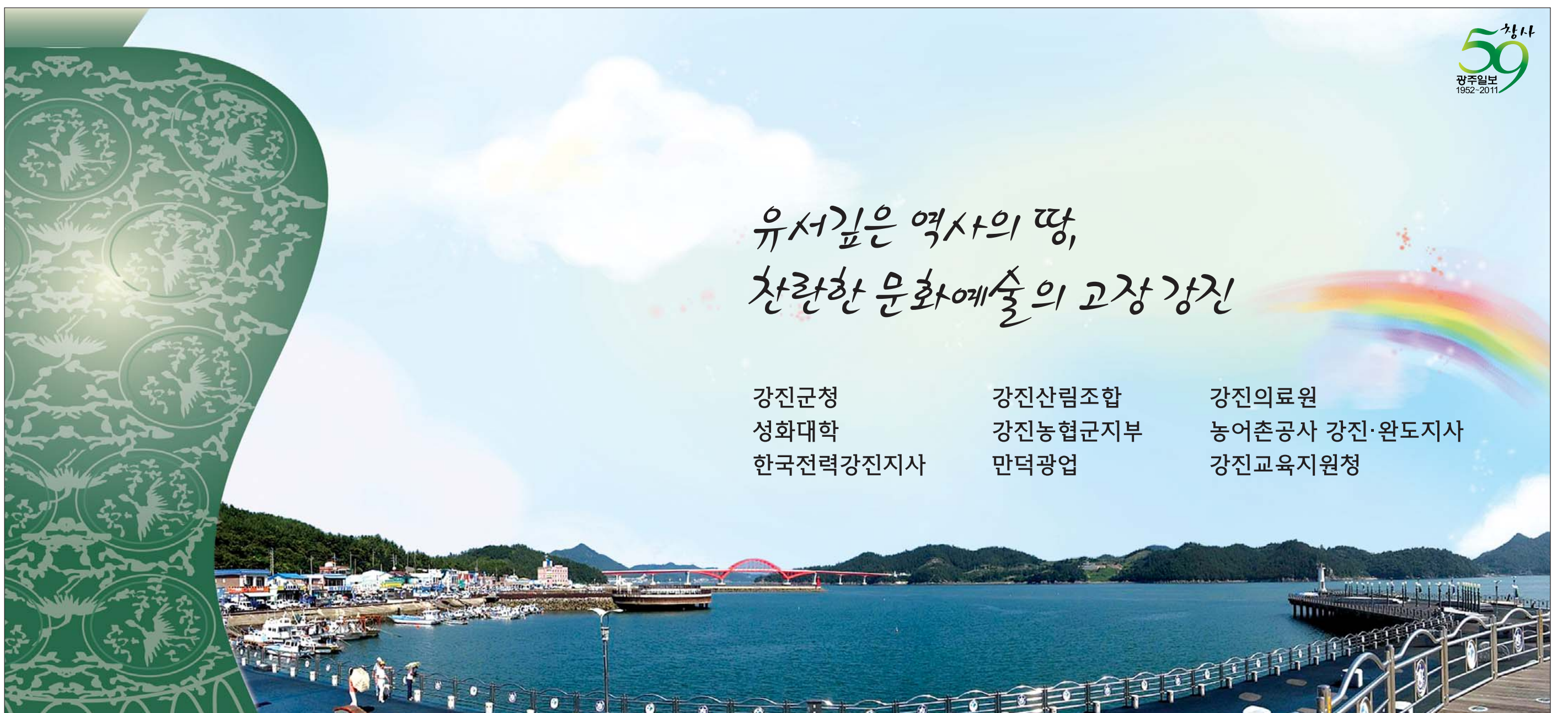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과학벨트는 기초연구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자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든든한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우리는 세계 7대 과학강국 실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려는 이유도 과학기술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일본 원전 사고를 들어 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도 있지만 결국 안전성 담보 문제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서깊은 역사의 땅,
찬란한 문화예술의 고장 강진

강진군청
성화대학
한국전력강진지사

강진산림조합
강진농협군지부
만덕광업

강진의료원
농어촌공사 강진·완도지사
강진교육지원청